

■ 업체탐방 / 日進電子産業(株)



〈회사개요〉

상 호 : 日進電子産業(株)

대표이사 : 李 尚 端

본 사 : 서울 마포구 도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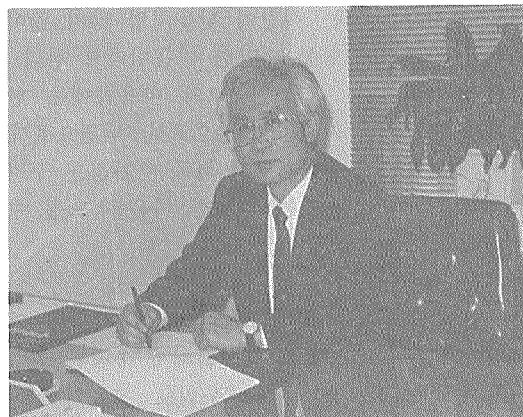
50-1 일진B/D

주요사업 : S/W 개발, FA,

LAN사업,

WAN사업,

전자부품, 컨설팅



代 表 理 事
李 尚 端

本誌는 2000년대의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불철주야 기초기술 및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日進電子産業(株)를 방문해 보았다.

마포구 도화동에 본사가 위치한 同社는 지난 '84년에 설립한 일진전자(주)와 '82년에 설립된 일진경금속공업(주) 2회사를 '90년 12월에 합병하여 출범한 기업이다.

能동을 사훈으로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자체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0년대의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아가고 있는 同社의 주요사업을 보면 각종 컴퓨터 사업, S/W개발, 공장자동화, 지역통신망, 전자부품,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거의 10여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광범위한 사업으로 同社는 '89년 3월에 국내최초로 전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직할시에 주민관리 W/S장비를 설치완료했으며 '90년대 후반에 도래할 WAN용 Packet교환망을 BBN사와 기술을 제휴하였고 LAN용 광통신을 세계적 기업인 Chipcom사와 기술제휴로 지능화된 자동기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 업체탐방 / 日進電子産業(株)

특히 '90년 8월에는 프랑스 BULL사와 기술을 제휴 IC카드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취급하는 Reader/Writer카드를 개발했으며, S/W개발영역에서는 S/W팩키지 개발 및 통신기술을 종합한 전산망시스템, 종합 OA개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팩키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 영역을 도입한데 대해 **李尙竣** 代表理事는 “앞으로는 자동화라는 범위가 단위적인 업무처리 영역에서 Network에 의한 사회전반에 걸쳐 자동화추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무에 있어 국제적 Network화로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됨에 따라 시장개척이 활발해지고, 영역이 다양해져서 기술의 전문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도 매출액 50억원, 올해 매출액 17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한 **同社**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외에 탈착형 하드디스크, 광디스크, 레이저프린터 등 최첨단 기술개

발에 힘써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급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힘써 세계제일의 기업발전이 희망이라는 **李尙竣** 代表理事는 전자업계 및 정부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스스로가 활로를 개척해 나아가야하며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이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경쟁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적기업으로 발전해가야 하며, 정부는 서로 협력하는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수립이 재고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할 정도로 자체기술개발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日進電子産業(株)**의 또 하나의 차이는 창업주 중심이 아닌 일진가족 모두의 자율적 행동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는 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결코 집착하지 않고 2000년대에 도래할 기술의 전문화를 목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日進電子産業(株)**는 능히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고 세계제일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